

# 기사회생의 영약 '솔표 우황청심원'

솔표조선무약(자) 자료제공

“재비 물러 나간다~재비 후리러 나간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여~”  
박동진 명칭의 시원스런 판소리 구절이 특징인 솔표 조선무약의 광고 CF는  
1992년 당시 최대 히트 CF로 꼽혔고 솔표 우황청심원이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됐다.  
본 고에서는 국내 우황청심원계의 선두, 78년 전통의 솔표 우황청심원  
변천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 1. 서두

“우리 국민의 건강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창업주(故 박성수 한의사)의 이념으로 성장해온 솔표 조선무약은 1925년 창업 이래, 한방생약분야의 최고가 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해온 업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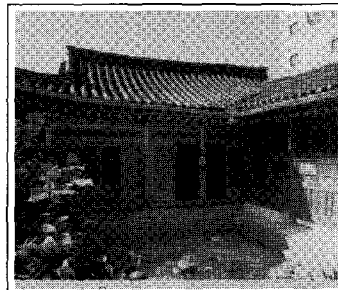
특히 솔표 조선무약의 '솔표 우황청심원'은 우리나라 우황청심원의 역사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표 우황청심원은 1925년 솔표 조선무약에서 '기사회생 우황청심원'으로 제조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화 되기 시작했고 1968년 의약품 최초로 일본 등 수출에 성공, 여러 제약업체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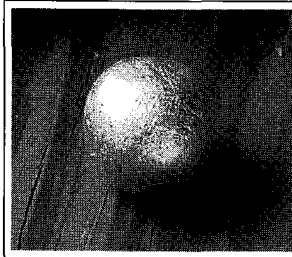
## 2. 우황청심원 포장 디자인의 변화

우황청심원은 동의보감 내경편에 수재돼 있는 신병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우황청심원환'으로 불린다.

1925년, 조선무약 창업과 함께 탄생한 솔표 우황청심원은 동의보감 처방을 근거로 시대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장로2가 조선무약합자회사의 구사옥에는 각종 자료들과 손때묻은 풍물들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 처음 발매된 청심원

변천에 따라 현대인의 체질에 맞게 70여년간 복방(複方)에 복방을 거듭 연구해 만든 솔표 고유 처방이다.

1925년 발매 초기의 솔표 우황청심원은 포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손으로 재료들을 반죽, 동그랗게 빚어 판매한 것에서 시작했다.

이후 손으로 빚어 개별판매하던 것에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우황청심원 개별 환을 플라스틱 병에 담아 시판했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 올림픽, '94히로시마 아시안 게임과 '96에틀란타 올림픽에서 공식 후원 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시 발매된 솔표 우황청심원 포장재에는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관련 로고를 새겨넣었다.

1995년 이후 우황청심원은 10병 액체 포장

및 10환 포장에 있어서 박스 포장에서 비닐포장으로 변화, 자원 낭비와 이용의 편리함을 추구했다.

### 3. 솔표 우황청심원 수출

지난 1968년 국내 최초로 솔표 조선무약이 일본 후생성(=보사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수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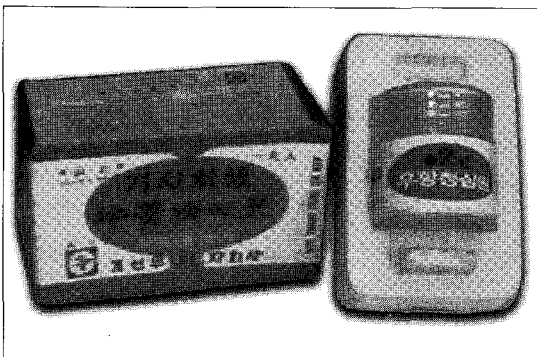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우황청심원을 수출한 것은 한방전문 제약회사인 조선무약이 최초이다.

이는 해방전후 국내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귀국 후에도 솔표 우황청심원을 계속 찾았고 일부 사람들은 직접 국내에 와서 기사희생의 명약을 구입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우황청심원에는 홍콩, 대만 제품도 있지만 이들 제품은 자양강장제인 건강식품으로 허가, 판매되고 있다.

이에 반해 '솔표 우황청심원'은 유일하게 일본 후생성의 의약품허가를 획득하여 지금도 일본제약과 일본수출 독점계약을 맺고 있다.

75년에는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우황청심원의



▲ 플라스틱병에 청심환을 넣기 시작



▲ 88올림픽을 겨냥해 발매된 솔표우황청심원



▲ 10환 및 5환 포장된 솔표 우황청심원



▲ 1968년부터 수출된 솔표 우황청심원

일본수출 독점권을 획득했고 86년에는 미주지역에 수출하여 그 약효를 외국인에게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약 700억불의 수출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 4. 생약제 생산 외길 78년

「우수약품개발로 온누리에 푸른건강을 심자」는 창업자 박성수 회장의 창업 이념으로 78년

동안 생약제만 전문으로 제조하는 제약회사로 발전해 온 솔표 조선무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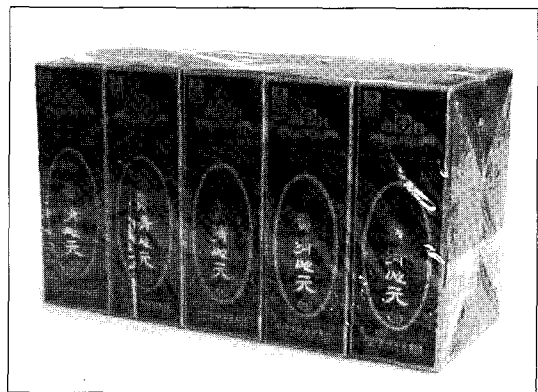
솔표 조선무약은 반월공장내에 전통한방생약의 메카인 생명과학연구소를 세워 획기적인 신물질 창출과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만송천연물연구센터를 준공, 21세기 국민건강을 선도해 나가려는 연구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한편 솔표 조선무약은 의약품과 화장품의 주원



▲ 솔표우황청심원의 수출광고



▲ 박스포장에서 비닐포장으로 변화된 솔표 우황청심원



◀ 현재 발매되고있는 우황청심원 액제 및 환

료로 사용되는 천연 사향대체물질인 “사향 무스콘” 실용화 연구에 성공했다.

이 외에 만송천연물연구센터 준공과 더불어 신물질 창출과 신약개발로 국민보건향상과 전통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타임캡슐 수장품목으로 선정된 술표 우황청심원

## 5. 전통 한방 세계화에 주력

술표 조선무약은 78년간의 KNOW-HOW로 제조기술이 축적된 술표 우황청심원은 약효와 부작용이 없는 안전 한약으로 자리를 잡아 이제는 한방의 과학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세계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술표(PINE TREE) 브랜드의 전통과 신뢰의 이미지 보강을 위해 '86 아시안게임, '96 애틀란타올림픽의 공식후원사로서 술표 우황청심원 뿐만 아니라 술표 전 제품이 공식후원 의약품으로 지정받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타임 캡슐의 수장품목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술표 우황청심원은 전통한방의 과학화, 세계화를 구현해 온 78년의 술표 기업 이념 속 정상을 향해 노력할 것이다. ko